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는 — BCSD가 한국기업인을 부른다

-석유협회 홍보실-

1. 머리말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CO₂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과 Agenda 21이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인류의 에너지이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에너지자원이 지극히 빈약한 여건하에서 '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매 10년마다 에너지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가격의 하향안정세와 급속한 경제성장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에너지소비 증가추세가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90년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90년대말까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고, 21세기초에는 선진복지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는 에너지소비의 지속적 증가 또한 불가피하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은 크게 제

약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선진국에 상응하는 규제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1세기가 「환경의 세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의 세기가 되면 모든 경제의 척도가 환경이 될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유무해여부가 정부의 주요정책결정이나 기업의 주요투자결정시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환경을 도의시한 기업은 존립할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의 의뢰로 환경보전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대표를 국제환경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인 회의」 (BCS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가입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기술개발원은 이와 관련 추천대상 국내기업 선정방안에 관해 지난 3월 15일 회의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BCSD의 현황과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2. BCSD란

과거에는 환경문제가 각 국가의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으로써 환경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들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협약들은 환경 파괴물질 또는 오염물질 과다배출상품의 소비 및 교역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부를 창출하는 기업 부문이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1992년 6월에 개최된 UNCED 사무총장의 산업부문 자문위원이었던 스위스의 기업가 Stephan Schmidheiny는 전세계 48명의 대기업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관인「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기업인회의(BCS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립한 바 있다. 현재 美國의 3M, Dow Chemical, Du Pont, 日本의 닛산자동차, 일본제철, 미쓰비시사, 그리고 獨逸 Volkswagen 등의 기업대표들이 BCSD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을 살펴볼 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산업·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제환경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BCSD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3. BCSD 회원

(1) 의장 Stephan Schmidheiny

BCSD의 설립자이자 의장인 S. Schmidheiny씨는 45세의 스위스 기업인으로 제조업 및 무역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3개의 대기업(Unotec, Anova, Nueva)을 소유하고 있다. S.

〈표-1〉 지역별 분포

지역구분	유럽	북미	일본	남미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비율(%)	31	21	15	13	10	10

〈표-2〉 산업별 분포

산업구분	제조업	금융산업	유통산업	자원 및 에너지 산업
비율(%)	61	13	13	13

Schmidheiny씨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기업들간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검토하여 재구성한바 있다. Unotec은 Landis & Gyr(건축 및 에너지관리회사)와 Leica(광학 및 과학 기구 제조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ABB Asea Brown Boveri(전자회사)와 SMH(시계제조회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인 Anova는 무역회사이며, Nueva는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있다. 수년간 S. Schmidheiny씨는 주로 남미 개도국의 중소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2) BCSD 회원의 지역별 및 산업별 분포

현재 BCSD를 구성하는 48명의 회원은 세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각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지역별, 산업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4. BCSD에 대한 소개

세계는 농업, 산업, 정보혁명에 이어 환경혁명의 문턱에 서있다. 현세대는 우리 후손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며, 이는「지속가능한개발」(SD: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 즉, 환경보전과 성장의 결합이다.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UNCED)회의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광범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세계의 부를 창출하는 기업부문이 이러한 변혁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UNCED 사무총장인 M. Strong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논의될 구상과 해결책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가하도록 애쓴 끝에 스위스의

기업인 S. Schmidheiny를 자신의 산업부문 수석자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S. Schmidheiny는 세계적 기업인 48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인회의」(BCS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결성하였다. BCSD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업들이 SD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CSD 회원은 대기업의 대표로서라기보다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기본 목표는 다음의 네가지이다.

〈기본목표〉

1.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증진과 그 기반에서의 사업전망 제시
2.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적인 환경사업수행에 대해 검토하도록 독려
3. 현재의 시장 조건과 미래의 국제협약, 정부정책, 재정조치하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체의 목표와 실질적 대책을 개발하도록 권장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국제적 경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과 토의

5. BCSD의 추진방향

BCSD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리가 기업활동에 혁신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 만들어졌으며, 미래를 향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며 추진력 있는 활동계획을 제공하고 있다.

(1) 개요

-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구적 차원에서 유효한 개념이며, 이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개발도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오염억제와 환경관리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변화는 소비의 문화에서 보전을 전제로 한 문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개발」은 목표가 아니고 세대단위의 과정이다.
-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며, 그

해결책도 전지구적 차원에서 찾아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새로운 국제적인,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단결과 협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경제체계에서의 변화

- 개방경쟁시장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지속적인 효율의 최적화를 이루는 최선의 구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방경쟁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행조건이다.
- 정부는 천연자원과 생태계의 손상 또는 개선을 국가 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시장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상품의 가격이 생산 비용과 환경피해 비용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
- 부과금, 세금, 보조금의 근거는 저축, 투자, 부가가치 과정을 권장하는 한편 환경손상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현재 이윤과 단기현금유동을 강조하는 자본시장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자본평가와 부의 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3) 기업경영에서의 변화

- 환경관리업무는 오염억제로부터 상품의 일생 (total life cycle)에 대한 집약된 개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 자원이용, 폐기물, 오염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기업은 환경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 주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 기업은 정부규제와 시장기구 그리고 내부규제의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경제개발

- 세계 각 분야의 경제 성장은 SD와 보다 산업화된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 정부는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국제무역과 국제협력은 성장과 환경우호적 기술

의 효율적 분배에 필수적이다.

- 선진국이 후진국과 무역을 하고 투자하는 것은 양측에 모두 유익한 무역과 투자의 형태를 찾고 시장에서 대등한 입장이 성립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다.

(5) 여론과 정책변화의 관리

- 많은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이르는 지름길은 따로 없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부터 더 깊은 지식과 이해, 대안의 평가,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일의 수행 및 실행에 이르려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결과를 보려면 오랜시간이 걸리는 정치적 결단이 곧 내려져야 하지만, 그것들은 틀림없이 불완전한 과학적 증거와 지식에 근거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결정이 안고 있는 위험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기 될 위험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과정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각

기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서로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 의견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치적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구분해서 전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치는 중요한 것보다 시급한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오늘날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내일의 피해를 바로 잡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는 개념으로 정치적 과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본다. 요약하면, 지구촌적 견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수세대에 걸친 장기 발전 지향
- ② 예방원칙의 채택
- ③ 국제적 단결의 새로운 개념
- ④ 인구 증가의 안정화
- ⑤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력

6. BCSD 회원명단

1. S. Schmidheiny	BCSD 의장. UNOTEC	스위스
2. T. Aakvaag	Norsk Hydro A. S.	노르웨이
3. N. Abou-Taleb	Mohandes Bank	이집트
4. R. D. Ackerman	Pick'n Pay Stores Limited	남아공화국
5. P. Barnevik	ABB(asea Brown Boveri Ltd.)	스웨덴/스위스
6. E. Batista da Silva	Rio Doce International S. A.	브라질
7. I. Bayon	Espasa Calpe	스페인
8. G. Cagliari	ENI(Ente Nazionale Idrocarburi)	이탈리아
9. E. C. Reyes	Grupo IMSA. S. A.	멕시코
10. R. de Andraca	CAP S. A.	칠레
11. E. de Royere	L' Air Liquide	프랑스
12. K. T. Derr	Chevron Corporation	미국
13. M. R. Greenberg	Americai International Group. Inc.	미국
14. C. H. Hahn	Volkswagen AG	독일
15. C. M. Harper	ConAgra. Inc.	미국
16. K. Inamori	Kyocera Corp.	일본
17. A. F. Jacobson	3M Company	미국
18. A. A. Johnson	Axel Johnson AB	스웨덴
19. S. C. Johnson	S. C. Johnson & Son, Inc.	미국
20. S. Kawai	Keizai Doyukai	일본
21. J. Kawake	Oji Paper Co.,Ltd.	일본

22. A. Krauer	Ciba-Geigy AG	스위스
23. H. H., Otunba Ayora	BEWAC plc	나이지리아
24. Y. Kume	Nissan Motor Co., Ltd.	일본
25. J. M. K. Martin Laing	John Laing plc	영국
26. E. S. Lorentzen	Aracruz Celulose S.A.	브라질
27. K. F. McCready	TransAlta Utilities Corp.	캐나다
28. A. Miki	Nippon Steel Corporation	일본
29. J. Monod	Lyonnaise des Eaux-Dumez	프랑스
30. S. Morohashi	Mitsubishi Corporation	일본
31. T. Naquiuddin	Antah Holdings Berhad	말레이시아
32. P. Ndegwa	First Chartered Securities Ltd.	케냐
33. P. H. O'Neill	ALCOA	미국
34. J. Onobiono	Compagnie Financiere et Industrielle CFI(S.A.)	카메룬
35. A. Panyarachun	Saha-Union Cop. Ltd.	태국
36. F. Popoff	The Dow Chemical Company	미국
37. F. Romero	BHN Multibanco S.A.	볼리비아
38. W. D. Ruckelshaus	Browning-Ferris Industries	미국
39. A. Salim	Salim Group	인도네시아
40. E. Salina Amorini		스위스
41. H. Sihler	HENKEL KGaA	독일
42. P. G. Stern	Northern Telecom Ltd.	캐나다
43. R. N. Tata	TATA Industries Ltd.	인도
44. L. C. van Wachem	The Royal Dutch/Shell Group	네덜란드/영국
45. Sir B. Watson	Mount Isa Mines Pty Ltd.	호주
46. E. S. Woolard	E. I. du Pont de Nemours & Company	미국
47. T. Yamaguchi	Yosoh Corporation	일본
48. F. Zorraquin	S.A. Garovaglio Zorraquin	아르헨티나

■ 시사용어 ■

석유위기 (oil crisis)

1973년 10월, 제 4차중동전쟁 과정에서 아랍산유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 대한 禁輸 와 減産 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전략을 발동한 것을 계기로 국제석유가격은 그전보다 단기간에 4배 이상 급등 하였다. (제 1차석유위기)

또한 1978년 말부터 이란혁명과 80년 가을의 이란 · 이라크 전쟁으로 당사국의 공급감소를 계기로 상황은 다시 급등(제 2차석유위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석유위기라고 부른다.

中国石化工業總公司

(China National Petrochemical Corporation)

1983년 7 월에 설립된 국무원 직속기업으로 석유화학관계 산하기업의 인사·자산·물자·생산·공급·판매·무역에 대한 집중지도 및 통일관리를 담당.